

‘명픽’ 정원오 뒤집기부터 전국 보수텃밭 흔든 권력 교체

輿, 輿 대항마 못찾다 극적 역전
대구, 공천잡음에 주요 전선으로
지선 투표율 4년 전비 20.2%p↑
전북지사·부산 북갑도 화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1곳에서 우위를 보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참패한 민주당이 총선·대선 승리에 이어 4년 만에 지방권력도 가져오게 됐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는 서울·대구·전북과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꼽을 수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구청장이 ‘명픽(이재명 픽)’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며 주목을 받았다.

결국 정원오 후보는 치열한 경선 끝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 현역 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3일 대구에서 출구조사 확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3일 대구에서 출구조사 확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 역시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하지만 ‘명픽’임에도 정원오 후보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서울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는 선거라 ‘여당 프리미엄’의 혜택을 가장 못 받는 지역이라는 점,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출장 논란 등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려왔다. GTX 삼성 구간에 철근 누락 사태,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등 안전 문제 선거 막바지에 불거지면서, 정 후보 측에서도 오 후보를 향한 공세를 가했다.

결국 서울은 송파·광진 등 투표용지 부

족 사태까지 겹치며 개표 중임에도 국민의힘이 ‘개표 중단’을 주장하는 등 막바지까지 가장 뜨거운 선거구로 남았다.

대구시장 역시 이례적으로 격전지로 꼽혔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삼고초려 끝에 김부겸 후보를 대구 선거에 출격시키면서 분위기가 반전을 꾀했다. 거기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킷오프(공천 배제) 시키면서 잡음이 생겼다.

정치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의

전선이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니라, 대구가 됐다는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가 김부겸 후보의 출마와 국민의힘 공천 잡음으로 주요 전선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은 빠르게 전열을 정비했다는 평가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 추 후보와 김 후보가 초접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쪽 캠프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격차가 워낙 적은 초접전인 상황이라 추경호 후보 캠프는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여겨졌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가 된 것을 보여준 셈이다.

거기다 대구는 통상적으로 지선 투표율이 낮았다. 대선과 같이 민주진보 진영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는 선거를 제외하고, 총선·지선의 경우 민주진보 성향 지지자가 투표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다. 하지만 이번에 대구지역의 투표율은 63.4%로, 4년 전 지선에서 43.2%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20.2%포인트(p)가 올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구에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카

드는 ‘김부겸’이다. 김부겸 후보의 출마가 대구지역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전북지사가 이례적으로 격전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무난하게 경선에서 1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제명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민주당 소속의 이원택 후보의 당선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곳은 부산 북갑이다. 이곳을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이다. 여기에 청와대 출신인 하정우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면서 14곳의 재보선 지역 중 관심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다. 특히 이곳은 여론조사가 30개 이상 돌아가면서, 막판에는 샘플이 잘 표집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출구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野 “개표 즉시 중단… 선거 연기 요구”

총 10여곳 투표소서 용지부족 사태
野, 개표중단·서울시 재선거 주장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대국민 사과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진상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의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라며 “이미 투표의 공정성은 깨졌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진상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는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개표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투표소가) 3시간 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정보를 중앙선관위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연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선거 개표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에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열고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 시간 이상 투표를 못하게 되면 일상상 사유로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독일 베를린 지선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사유로 선거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선관위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며 “예산 체계상 유권자 숫자 플러스 알파만큼

투표지를 인쇄할 예산이 이미 반영돼있는데 그 예산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다른 곳에서 급하게 이송해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크다”며 “18시 이후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선관위에서 사과한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며 “더 이상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많은 국민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과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대기 중인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투표함을 이동시키려다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인 상황을 소개하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투표함 회수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시는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및 현장 브리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과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동별로는 가락2동, 잠실2동, 잠실4동, 잠실7동, 문정2동, 청담동, 구의3동 등이다.

교육감 진보 11곳·보수 3곳 우세, 2곳 경합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 보수 성향 후보가 3곳에서 우세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합은 2곳이다.

3일 지상파 방송3사(KBS·MBC·SB S)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전남광주, 전북, 충남, 대전, 강원 등 11곳, 보수 성향 후보는 대구, 경북, 충북 등 3곳에서 우세했다. 경합은 세종, 제주 등 2곳이다.

서울에서는 진보 정근식 후보가 39.0%로 21.2%의 보수 조전혁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경기에서는 진보 안민석 58.2%, 보수 임태희 41.8%로 나타났으며 인천은 진보 도성훈 37.1%, 보수 이대형 32.7%로 집계, 수도권에서는 모두 진보 진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에서도 모두 진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에서는 진보 김석준 49.6%, 보수 정승윤 34.0%, 울산에서

는 진보 조용식 44.2%, 보수 김주홍 32.0%, 경남에서는 진보 송영기 42.2%, 보수 권순기 38.7%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40.4%,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가 56.2%로 각각 1위로 예측됐다. 충남에서는 이병도 34.1%, 대전에서는 성공진 33.2%, 강원에서는 강삼영 43.8% 등 진보 후보가 모두 1위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후보가 1위로 예측된 곳은 대구 강은희 51.5%, 경북 임종식 45.0%, 충북 윤건영 45.7% 3곳이다.

세종에서는 진보 임전수 후보가 35.1%, 중도·보수 강미애 후보가 32.5%, 제주에서는 진보 고의숙 후보 45.1%, 보수 김광수 후보 42.0%로 경합 양상을 보였다.

이번 방송3사 공동 출구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이 방송3사 의뢰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4.1%포인트(p)다.

10여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 1면 ‘輿 압승’ 정권 안정…서 계속

당 주류의 공천 기조에 대한 당내 비주류의 견제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국민이 힘을 실어준 결과”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 속에서도 호남의 무소속 돌풍과 영남권 격전지의 고전이라는 과제를 남기게 돼, 선거 이후 여야 모두 리더십 재편을

둘러싼 썬더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를 비롯한 1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했지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오점을 남겼다.

/서예진 기자